

“ 지붕 위에 난 풀 ”

■ 이종윤 원로목사

높은 자리나 탐하고 남의 눈에 띄어 나타나기를 좋아하며 스스로 잘난 체 하는 사람은 마치 지붕 위에 난 풀과 같아서 보기에 어설피다. 모든 것은 제자리가 있고 알맞아야 어울린다. 분수를 모르고 남을 제치기 위해서 있는 말 없는 말 가리지 않고 쏟아내면서 함부로 덤비는 모습은 지붕 위에 난 풀처럼 보기에 괴롭고 받을 심판을 생각하면 애처롭기까지 하다.

풀이라고 해서 다 쓸모가 없는 것은 아니다. 가축을 위한 목초나 사람을 위한 식용도 있고 농사를 위한 퇴비도 있다. 그러나 지붕 위의 풀은 퇴비나 사료, 심지어 똥감으로도 사용할 수 없는 무용지물이고 관상에 해롭고 건물 유지에도 유해할 뿐이다.

사람이 하나님을 위해서나 사람을 위해서 쓸모 없는 이가 되거나 해로운 존재가 된다면 불행한 일이다.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자기 자리가 있다. 머리카락은 머리 위에 붙어 있을 때 제 값이 있다. 그것이 맹장 속에 자리를 잡으면 사람을 괴롭히는 것이 된다. 제자리를 이탈하고 남의 자리를 차지하려는 이들 때문에 우리 사회나 교회가 어지러워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 모든 만물은 하나님이 주신 분량 따라 제자리를 찾아 수고의 땀을 각자 흘려야 한다.

풍부한 지식과 지략을 갖추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면에서는 좀 부족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고 거짓 없는 정직과 자신의 그릇을 아는 사람이 그립다. 조화와 질서가 있는 세상이 창조주에 의해 주어졌지만 인간의 교만과 불신앙으로 피조물들이 제자리를 상실한 때부터 역사는 혼돈에 빠지게 되었다.

앉을 자리 설자리를 분별하여 자리를 지킬 수 있는 사람이라야 남의 집도 쳐 줄 수 있을 것이다.

사사기에 나오는 요담의 우화 한 토막이 생각난다. 하루는 나무들이 모여 회의하여 감람나무에게 우리 왕이 되라 했다. 감람나무는 나의 기름은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나니 내가 어찌 그것을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요동하리요 하면서 거절했다.

뒷면으로 계속➡

앞면에서 계속

무화과나무와 포도나무도 같은 제안을 받았지만 그들은 한결같이 하나님이 주신 귀한 사명을 버리고 나무들 위에 요동할 수 없다 했다. 자기 분수를 아는 이들이었다. 그러나 가시나무는 나를 왕으로 삼으려면 내 그늘 아래 피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불이 가시나무에서 나와 레바논의 백향목을 사르겠다 했다. 제자리를 벗어난 악하고 준비되지 않은 아비멜렉을 왕으로 세운 세겜 사람들에게 주신 경고의 말씀이다.

뿌리가 깊지 못하고 그 양도 얼마 되지 못하며 제자리도 찾지 못한 지붕 위의 풀보다는 어둠을 밝히는 등잔의 기름을 짜내는 모퉁이의 감람나무가 되게 하소서 해야 한다.

—한국장로신문 [1284호] 2011년 7월 23일에서 발췌—

English Worship Service	
[Room 802, 11:20 am]	[Pastor: David John]
* Call to Worship	Pastor
* The Apostles' Creed	Congregation
* Doxology	1..... Congregation
Congregational Prayer	Kyung Won Jang
Hymn	36..... Congregation
* Offering	Congregation
* Offering Hymn	50..... Congregation
Offering Prayer	Presider
Welcome/Fellowship	Congregation
Scripture Reading	Matthew 3:13-17 Pastor
Sermon	“The Baptism of Jesus Christ” Pastor
* Hymn	450 Congregation
* Benediction	Pastor
* Lord's Prayer Song	635..... Congregation
(* Please stand if you are available)	

우리의 비전 (vision)	① 세계 복음화(Evangelization of the whole world) ② 교회 천국화(Kingdomization of the whole church) ③ 문화 기독교화(Christianization of the whole culture)	서울교회 QR코드 
--------------------------------	---	--

부 목 사 서명철 장석남 조원영 서준권	
교육목사 윤누가	교육전도사 최근영
전도사(교육담당) David John Khokhar Jimmy Eppley	
선 교 사 강아름주하나, 김원호(동아시아), 전광혜(아시아), 이은준강혜정, 마켓잔(카자흐스탄) 스프로토바로이, 조남혜 (방글라데시), 이재울박병진(캄보디아), 전호진(미얀마), 조범연김희정, 우상식김정옥, 이삭, 비스타파, 사지, 에녹(인도), 정상진홍성임(말라우), 서광중이성일(인도네시아), 이재훈박재연(마다가스카르), 김용진황경혜(말라위), 김영호서향정(러시아), 허창범현미순(일본), 김낙형·오정녀(캐나), 김종일백순미(타이노동자), 훈쿠야 땅 땅 쩌 코 카 마이 랑 사무알 레이 난 쌍 잔다 사무 키움 랑 호라 라베 벤 비에 마웅 차 짜우 미카엘(미얀마) 필리몬 프로산뜨 수레시 수바쓰 이정엽 알로롱 비시누쁘도 보디소뜨 린쯔 수관준 방글라데세, 김택식 윤용모 노신애 이금순 김명일, 김덕수(군선교)	

	전국시민 양성·만민에게 전도·빈약한 자 구제 대한예수교 장로회 서울교회 SEOUL PRESBYTERIAN CHURCH	
	원로목사 이종윤 Emeritus Pastor Lee Jong-Yun, Ph. D., D.D., D. D.	
	담임목사 (안식) 박노철 Senior Pastor Park, No Cheol	
	135-835 서울특별시 강남구 대치동 210 210 Daechi-dong Gangnam-gu Seoul, Korea	

“그 중의 제일은 사랑이라 ”

■ 고전 13:13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침, 저녁으로 만나고 헤어질 때마다 살롬, 평화의 인사를 나눕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항상 평화를 갈망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바와 같이 지정학적, 역사적인 관계로 항상 전쟁을 겪었던 이스라엘 민족은 전란으로 인해 수시로 평화를 잃어버리고 또한, 평화를 찾아 해매고 살아온 민족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지구상에서 가장 평화가 부족한 곳이 어디입니까? 라는 질문을 한다면 바로 우리들이 살고 있는 이 한반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북한의 핵무기로 인해 전쟁의 위기가 고조되어 평화의 기운이 부족한 한반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지속적으로 평화를 위한 노력과 기도를 해야 하고, 실제로 삶을 통해서도 평화를 얻도록 노력을 해야 합니다. 평화는 평화로운 사람들이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내 자신이 평화롭지 못하면 결코 평화를 만들 수 없습니다.

1. 살롬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다
 우리의 삶은 평화로울 때 비로소 행복하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평화로운 삶은 쉽게 얻어지고, 쉽게 이루어지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평화를 누리기 위해서는 각고의 노력과 함께 절대적인 자기희생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부부간에도 자기희생이 없다면 화평할 수 없고, 이웃 간에는 더 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평화는 자기희생이라는 제물을 바쳐질 때 비로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가장 고귀한 교훈이며, 인류가 끝까지 이루어야 할 길입니다.

2. 믿는 자의 삶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다
 모든 것을 다 내려놓으시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물과 피를 다 흘리시고, 다 나누어주시고 아무것도 없는 텅빈 상태 그것이 예수님의 케노시스(kenosis, 자기 비움)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무덤까지 내려가셨습니다. 그런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어 하늘의 보좌에서 모든 사람들을 그의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시고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왕이 되었습니다. (빌: 2:10)
 중세시대에 교황이라는 우상이 세상을 어지럽힐 때 목숨을 걸고 항거했던 마르틴 루터와 존 칼빈과 같은 종교개혁자들이 이루어 놓은 종교개혁의 정신과 위업은 인류 역사를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런데 돌이켜 보면 종교개혁 500주년이 되는 이때에도 종교개혁 이전과 크게 변화된 것이 없고 어떤 면에서는 종교개혁 이전보다도 못한 면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진리의 뿌리를 내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온 세상을 바로 세우므로,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삶이 변화되어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교회가 될 것이며 그래야 비로소 하나 되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3. 교회를 아름답게 함이 하나님을 아름답게 모시는 길이다
 “교회를 아름답게, 세상을 새롭게” 라는 실천신학의 주제가 있습니다. 교회가 아름답게 되기 위해서는 교회가 하나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아름다운의 절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아름답게 지으시고, 보시기에 아름답다 하셨습니다. 모든 미학의 근본은 하나님이십니다. 이러한 미학이 회복될 때 비로소 교회가 아름다워지고, 하나님께서도 아름다워지는 것입니다. 교회를 아름답지 못하게 하는 수많은 이단들과 사탄의 역사가 지속적으로 교회를 공격하고 어지럽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지배받는 교회가 되어 하나님의 교회를 올바르게 세워나가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시무하던 고린도교회에는 세상적인 많은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또한, 다양한 온사들을 가지고 교회를 섬기겠다고 나서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 많은 온사 가운데 사랑의 온사가 최고라고 했습니다.

맺는 말
 지금 서울교회에 몰아치는 시련은 하나님 사랑의 능력으로만 이겨내야 합니다. 오늘날 교회가 많은 시련을 겪고 있으며 특히 우리 교단에 이런 시련의 사례가 많습니다. 마귀의 독침은 성령의 능력으로만 회복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으로만 무장해야 시련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기독교 교회의 분파와 분열은 지극히 세속적인 것을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성령의 온사를 받아서 극복해야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승리하심을 본받아 서울교회도 속히 믿음으로 성령의 능력을 받아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교회가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지난 주 손인웅 목사(덕수교회 원로목사) 설교요약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요 4:24)

주 일 예 배

Sunday Worship Service		
시 간	인 도	기 도
Time	Prsider	Prayer
I 오전 9시	서명철 목사	차도훈 장로
II 오전 11시 20분	조원영 목사	주동재 장로
III 오후 2시	장석남 목사	홍일성 장로

입례송 Prelude	오르가니스트
예배에의 부름 Call to Worship ...잡 3:1-2...	인 도 자
기 원 Invocation	인 도 자
* 찬 송 Hymn5(3).....	다 함 께
* 신앙고백 Apostles' Creed	다 함 께
* 성서교독 Responsive Reading7(시 13)...	다 함 께
* 송 영 Doxology	다 함 께
기 도 Prayer	말 은 이
찬 송 Hymn32(48)...	다 함 께
성경봉독 Scripture Reading요 9:1-5...	인 도 자
성도의 교제 Member's Fellowship	다 함 께
봉헌 Offering	다 함 께
봉헌송 Offering Hymn634(70) ...	다 함 께
* 봉헌기도 Offering Prayer	설 교 자
* 찬 양 Anthem	찬 양 대
새가족 환영 Welcome to Newcomers	다 함 께
설 교 Sermon밤이 오기 전에...	박위근 목사
* 찬 송 Hymn357(397)...	다 함 께
* 축 도 Benediction	설 교 자
* 주기도송 Lord's Prayer Song	다 함 께

찬 양 예 배

오후 5시 ·인도: 조원영 목사, 설교: 이종윤 원로목사

목 도	다 함 께
성 시 시 11:3-4	인 도 자
찬 송 456(509)	다 함 께
기 도	김진달 집사
성 경 계 2:8-11	인 도 자
찬 양	찬 양 대
설 교 "서머나교회"	설 교 자
* 찬 송 336(383)	다 함 께
* 축 도	설 교 자
* 주기도송	다 함 께
*	

수 요 예 배

오후 7시 ·인도, 설교: 서명철 목사

기 도	남태영 권사
성 경 뱀전 1:1-2	인 도 자
찬 양	찬 양 대
설 교 ... “부르심에 합당한 삶” ...	설 교 자

새벽기도회(인터넷 영상)

오전 5시30분 ·피아니스트: 이경화·홍혜란김양안박수강

설 교 조원영 목사

◆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라 (엡 5:19) ◆ CANTANTES ET PSALLENTE IN CORDIBUS VESTRIS DOMINO								
찬 양 대					헌 금 송			
예 배	찬양대	지휘자	오르가니스트	피아니스트	팀파니스트	찬양대	지휘자	피아니스트
I 부	가브리엘	백경화	김현정11	송재근	윤주일	가브리엘		
II 부	할렐루야	류총기	차주연	김양언	윤주일	그레이스앤드벨	송재월	
III부	임마누엘	임범창	김윤지	이주희	윤주일	아멘관현악단	임범창	
찬양예배	베들레헴	유태양	최수향	박수강	윤주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의 제일은 사랑이라(고전 13:13)		
영어예배	예루살렘	심상희		이승민1	지난주 성구			
수요 I 부	호산나	구민영	김윤지	홍혜란				
수요 II부	시 온	최유현	김예지	조현정				

예배 및 집회시간 안내

구 분	시 간	장 소	
주 일 예 배	I 부 예 배	오전 9시	본당
	II 부 예 배	오전 11시 20분	
	III 부 예 배	오후 2시	
	찬 양 예 배	오후 5시	
수 요 예 배	II 부 예 배	오후 7시	웨스트민스터 홀
새 벽 예 배		오전 5시 30분(매일)	인터넷 영상

교 회 소 식

◆ 모 임

- 제1권사회 5월 직장인 월례회 및 기도회 / 28일(주) 3부 예배 후 802호

◆ 알 림

- 101호 예배
중고등부 예배: 주일 오전 9시-10시
청년2부(다락방모임): 주일 오후 3시30분-5시
- 102호 예배
사랑부 예배: 주일 오전 10시20분-11시
에바다부 예배: 주일 오후 1시-2시30분
- 603호 예배
소망부: 주일 오전 10시-11시, 오후 1시-2시 / 청년1부(다락방모임): 주일 오후 3시30분-5시
- 609호 예배
디아스포라부: 주일 오후 1시-2시
- 701호 예배
유초등부 연합 예배: 주일 오전 11시20분-12시30분
- 706호 예배
영아, 유아, 유치부 예배: 주일 오전 11시20-12시30분
- 802호 예배
영어예배부: 주일 오전 11시20-12시30분
- 금주 수요예배는 오후 7시, 101호에서 한 번 드립니다.
- 의료 상담 / 김봉배(외과, 통증클리닉), 정현구(치과) 주일 오전 10시40분 - 오전11시까지 1층 서적부에서 의료 상담을 합니다. ※ 전화 예약 010-8993-5558

10. 박위근 목사 소개

대구대학교(BA)
장로회신학대학원(MDiv.)
연세대 교육대학원(MEd.)
풀러신대원(DMin.)
연천교회 원로목사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 중경총회장
(사)한국교회연합 제2대 대표회장

◆ 장 례

- 故 신순철 성도(3교구 박영실 집사 시모) / 5월26일(금) 별세, 27일(토) 발인

“서울교회 새가족으로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지난주 출석현황				
주일1,2,3부	찬양예배	교회학교	주일예배 합계	수요예배
886명	281명	301명	1,461명	162명

수입, 지출 내역보고(5/21)

(단위 : ₩)

월 일	적 요	수 입	지 출
5월 21일	헌금 입금	28,922,030	
"	특별예배비		1,000,000
"	찬양운영비		1,000,000
"	선 교 비		300,000
"	구 제 비		1,350,000
"	출 판 비		270,000
"	인 건 비		11,044,400
	소모품비		795,000
	통 신 비		1,258,430
	차량유지비		1,079,470
"	복리후생비		85,000
	수도광열비		13,180
	환경유지비		293,000
	수선유지비		682,200
"	식당운영비		720,480
	합 계	28,922,030	19,891,160

웃으려면 울어라

웃음은 기쁨의 표시라면 울음은 슬픔의 표현이다. 그러기에 울면서 살기를 바라는 자보다 웃으면서 살기를 좋아하는 이가 많다. 그러나 웃기 위해서는 먼저 울어야 한다.

가을에 웃으려면 봄에 울어야 한다. 수고와 아픔이 없이 힘들다고 포기하면 추수의 기쁨을 맛볼 수가 없게 된다. 고통이 오고 눈물이 나도 씨를 뿌려야 가을에 기쁨으로 단을 거두는 법이다.

노후에 웃으려면 젊을 때 울어야 한다. 젊은 날에 주색잡기에 밤을 보내고 향락에 빠져 날을 보내면 늙고 병드는 날 울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긴 세월 동안 형설의 공을 닦거나 주립과 헐벗음을 견디면서 성공한 이들의 이야기는 수없이 많다. 영원히 웃으려면 현세엔 울어야 한다.

영원히 슬피 울며 가슴 치며 이를 가는 저주받은 영원히 아니라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축복 받은 영원을 얻으려면 회개의 눈물이 먼저 있어야 한다. 천국은 마른눈으로 들어갈 수 없기 때문이다.

-이종윤 원로목사 신앙칼럼 '순례자'에서